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봉헌 축일
제34권 10호(가해) 2014.2.2

[묵상]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촛불은 ...

만민의 빛이신 그리스도님을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빛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현존)을 의미한다.

초를 축성하는 예절을 하는 것은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만나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이다.

그분과 같이 우리 자신을 태워
주님 안의 또 다른 불길이 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전제되어진다.
촛불과 같이 스스로가 불타야만 되기 때문이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일을 한다.
결국 더 많은 희생은 더 큰 봉헌이 이루어지게 한다.

가장 절실하고 의미 있는 봉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
깨끗하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바치는 일일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계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중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인영 베드로, 조점봉, 임재화 안나 (생) 이용운, 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이규일 모니카 & 박경련 마리아, 원지영 안나, 박민환 미카엘 & 이만석 미카엘 & 김아영 아가다 & 김윤희 미카엘라
주 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김성일 바오로, 윤부현,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김만숙, 신대진 베드로 (생)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남성철 베네딕도, 김혜신 카타리나, 지승준 토마스 아퀴나스, 정화숙 테레사, 오 마우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서(Malachi) 3,1-4

화답송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2,14-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복 음 루카(Luke) 2,22-40<또는 2,22-32>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주 찬양합니다	230	184
봉헌	255	255	254
성체	주님께서는	307	304
파견	찬양하세	231	200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가. 상주의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성모 신심

상주 황테레사 사건에 관한 당시 판정선언 : 본 주교는 교회법 제1261조 제1항에 의하여 5명 성직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협력으로 황테레사 사건에 대하여 1957년 1월 15일부터 동년 동월 21일까지 심사한 바 소위 계시, 현시, 발현, 예언, 기적 기타 등이 “천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판정하여” 이에 선언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금지 공포함.

금지사항 : 1) 모든 신자,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금지함.

(-) 소위 ‘성삼 은혜’건에 대한 황테레사와의 서로의 연락, 서로의 방문, 서로의 서신.

(-) 성삼 기도문, 기타 서책, 선전문, 글, 그림, 선전, 집회, 논의, 영신 지도.

(-) 위의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언어 행동.

2) 각 고해 신부는 위의 사항을 거역하는 자에게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거절할 것.

또한 1997년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이란 책자를 통하여 성모 신심 운동에 기생하여 전파되고 있는 잘못된 사적 계시를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운동으로 단정하였다. 물론 이 문헌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교리위원회는 1997년 1월 9일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그의 책을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서적으로 꼽았다. 이 건의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지적하였다.

1) 상주 황 테레사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2) 나주 윤 올리아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3) 수류 봉당 비오 신부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4) 부산교구 강우영, 강우성 형제 신부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5) 베이사이드 성모발현을 강조하는 전 미카엘 중심의 ‘로사리오 기도회’. 6) 서울 최 올리바, 정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올리브 기도원’. 7) 김천 최 베네딕타를 중심으로 한 그룹. 8) 베로니카 수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원. 9) 박해정 중심의 ‘기도하는 운동의 모임’. 10) 부산의 ‘사슴 유아원’을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11) 부산 조무숙을 중심으로 한 모임. 12) 원주 민재기를 중심으로 한 ‘고난의 빛 기도회’.

그리고 이미 『평화신문』과 정의구현사제단이 내는 회보 『빛두레』,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 편집부의 『신학전망』을 통하여 그의 사적 계시에 대한 비판이 게재된 바 있다. 특히 1998년 3월 29일자 『평화신문』과 『가톨릭신문』은 당시 주교회의의 결정을 전해 주고 있다.

또한 당시 주교회의의 의장 정진석 주교는 3월20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의 일로 관할 교구장들(고 서정길 대주교와 두봉 주교)이 내린 금령이 있고 아직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를 사적 계시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계속>

초 그리고 봉헌

사제 서품 미사에 참례한 신자분들은 모두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성인 호칭 기도 중에 제대 앞에 었드린 후보자들의 모습은 봉헌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제대 앞으로 나아가는 수도자들의 종신서원도 봉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복음에서 전하듯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의 봉헌되심은 하느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봉헌으로, 우리들 역시 하느님의 것으로 봉헌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전례 중에 사제는 일 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축복된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길 청하는 축복 기도문에서, 복음 속 시메온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으려고만 하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에 비해, 온 삶을 내어드리는 시메온의 순수한 기다림과 예수님의 봉헌되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느끼게끔 해줍니다.

어떤 성당은 전례 중에 투명한 유리통 안에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밝히는 초를 사용합니다. 산뜻한 느낌과 초를 깎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밀초가 아니기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리 초나 밀초 모두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초 안에 들어있는 투명한 기름을 보면서 우리의 봉헌도 맑고 순수한 봉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밀초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자신을 태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봉헌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와 주님의 봉헌은 하나로 연결되고 영원한 빛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빼앗으려는 폭력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느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초를 밝히고 기도드리는데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봉헌 생활의 날'인 오늘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린다면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성주 프란치스코 신부 / 부산교구 전산홍보국장

마음, 구석구석

오랜만에 들었던 가방에서
오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선물보다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있고 있던 것,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도
찾고 보니 노동으로 애써 얻은 것에
뒤지지 않았습니니다.
이게 어디 오만 원짜리 지폐만의 일이겠나,
마음 커커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치스코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날을 '봉헌의 날'로 제정하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자가 수도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봉헌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 합니다.

- ◆ 주님 봉헌 축일에 제대초와 개인초를 봉헌하신분들중 개인초는 오늘 낮미사중 초축성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 문의 : 김막달레나 ☎(310)539-3377

- ◆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관련 세미나

● 일시 : 오늘 주일(2일) 점심식사후

● 장소 : 성전

● 문의 : 이정훈 안셀모 사회복지분과장 ☎(310)908-8823

- ◆ 안나회에서 전신자에 친교점심 대접

● 일시 : 2월9일(주일) 낮미사후

● 메뉴 : 우거지 콩나물국밥

● 새회원 모집 : 65세이상 여자교우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87-4387

- ◆ 본당 성소 후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소자 양성 및 예비 성소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소후원회 회장 ☎(310)780-0369

- ◆ 주일아침미사 성인 복사 모집

● 미사시간 : 주일아침 7시30분

● 문의 : 김성현 유스티노 전례분과장 ☎(310)347-1665

- ◆ 2014년 주일학교 학생 복사단 모집

● 대상 : 첫영성체를 한 주일학교 등록학생이면서 부모님이 열심히 신자인 학생

● 첫모임 : 2월22일(토) 오후 2시

● 문의 : 신동윤 빈첸시오 복사담당 교사 ☎(310)744-5878

● 입단식 : 6개월 교육기간이 끝나면 8월중 낮미사 (오전11시)중 에 입단식 거행(날짜 추후 통보)

- ◆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미사에 봉사하실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문의 : 오마우라 수녀님

- ◆ 백삼위 서예반에 초대합니다.

● 일시 : 매월 둘째주일 낮미사후- 서예

매월 넷째주일 낮미사후- 사군자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기도의 언덕'을 이용합니다.

●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지향을 적어서 성체 조배실에 비치된 '기도의 언덕' 함에 넣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성령기도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주일학교(5학년 카레라이스)

● 2월9일(주일) : 안나회(우거지콩나물국밥 \$0)

* 주일학교(6학년 김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강미순	강인모	강태홍	김우용	김원호	김정엽
	김충섭	나경흠	남성철	노찬술	박기돈	박영통
	박완철	박종열	박현주	신현화	안재만	엄영희
	오명섭	오세원	오수인	유영균	유희연	윤 철
	이경태	이근태	이미경	이병우	이형삼	임한나
	장수창	장영진	전정자	정동호	정지숙	조준제
	조혜정					
합계 : \$3,725						
주일미사 헌금 : \$3,051						

성전헌금	성전헌금					
	강미순	강인모	강태홍	김우용	김원호	김정엽
	김충섭	나경흠	남성철	노찬술	박기돈	박영통
	박완철	박현주	안재만	오세원	오수인	유영균
	유희연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형삼	임한나
	정동호	정지숙	조준제	조혜정		
합계 : \$2,325						
달력/주보 광고후원 : \$1,7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 2학년 첫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일) 수업시간중(오전 10시30분~낮12시)
 - 내용 : 수업내용, 준비사항, 스케줄 관련 등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주임 ☎(310)780-8895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 디스카운트 혜택 : 2월9일까지 접수하면 10% 절약 \$180
 - 신청마감 : 2월23일까지 선착순 30명제한(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박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 SAT반 학생모집
 - 대상 : 현재 8학년이상/11월1일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
- ◆ 한국학교 설날행사
 - 신부님/수녀님께 세배드리기, 학부모님과 떡나누기 :
오늘주일(2일) 오후1시10분부터 40분까지
- ◆ 한국학교 도네이션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해숙 요세피나 님, 이현주 켈트루다 님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 LA아그네스 성당 제19기 커피 교육
 - 일시 : 2월10일(월) 오후 1시~오후 5시
13일(목) 오후 6시30분~10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지도 : 최대제 토베르토 신부
 - 수강료 : \$200(첫강의후 10회 실습)
 - 문의 : 성당 사무실 ☎(323)731-4433
- ◆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2014년 2월5일(수)~9일(주일)
 - 지도 : 조학균 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y(650 Benet Hill Rd. Oceanside)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 남녀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노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2/16(주일) 오전7시 온천피정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2/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토테아 200-0512	1	강인모태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2/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8(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정숙 토사 592-6712 2/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김정숙 수산나 592-4739 2/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남 마르시아 634-6923	박정남 마르시아 634-6923 2/11(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호창 요셉 213-550-6653 2/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오세원 아타나시오 569-0482 2/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젤마 530-3470 2/8(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2/15(토) 팜스프링스 온천피정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2/14(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성미선 리디아 944-4577 2/15(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427-1927 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상처받고 실망하며 굳이 성당에 갈 이유...

저는 같은 신심단체에서 활동했던 어는 자매님의 나쁜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더이상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묵주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상처받고 실망하며 성당에 갈 이유를 못느낍니다.

☞ 교회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받아들임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교회가 기룩하다고 고백하지만 과거 교회 역사나 현실을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그 다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신앙적으로 뛰어난 엘리트나 득도한 도인들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들만을 선별하여 교회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죄인으로 멸시받고 소외된 세리, 창녀, 어부, 평민들을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기룩한 공동체입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교회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받아들임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 11~32 참조)의 아버지 모습에서 이런 받아들임과 용서와 사랑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작은아들, 큰아들, 아버지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각각의 인물들은 신앙인으로서 성장 과정의 단계를 알려 줍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도 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서받고 싶어 하는 작은아들이 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죄인인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큰아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인의 완성은 부족한 형제자매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언제나 받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집으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받아들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

믿을만한 사람

우리는 신뢰할만한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 믿을만합니다. 그 친구 누나가 우리 사촌 형과 결혼했어요.”, “그 친구 믿으셔도 됩니다. 저랑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 믿을

만합니다. 저랑 같은 교회 신자거든요.” 이렇게 혈연, 학연, 지연으로 대변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대체로 믿어워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면,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점차 그러한 ‘관계중심의 사회’에서 ‘원칙중심의 사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실수를 인정하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대부분 숨기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만이 알고 넘어가는 실수란 많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실수는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숨길수록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회사,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집단이 되려면,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모아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내 구성원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너그러운 룰을 적용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신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은 점차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여유가 생기고, 약속은 지킬 수 있게 되니 믿을만한 사람들로 변해 갑니다. 아무리 품성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아도 실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고, 약속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면, 품성 좋은 사람들조차도 점차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않게됩니다.

하느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백성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느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니, 이보다 더 실수를 인정하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고백성사는 또 다른 신앙적 성장을 위한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두를 인자하게 들어주시고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 자체가 정말 선진화된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소에 들어서서 “휴, 사는게 그냥 죄지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우스개 소리들을 합니다. 이건 실수의 인정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를 하느님이 주신 생명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백은 늘 하지만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노력을 안하는 것이니, 결국 하느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이런 우리를 다 믿어 주십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믿을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정말 선진화된 룰을 가지신 분입니다. ◆박용만 실마노 / (주)두산회장